

2025 여름방학 지리학사 스터디 – 흑인 지리학

석사과정 박제욱

1. 서론
2. 지리학의 절대성과 흑인지리학
3. 결론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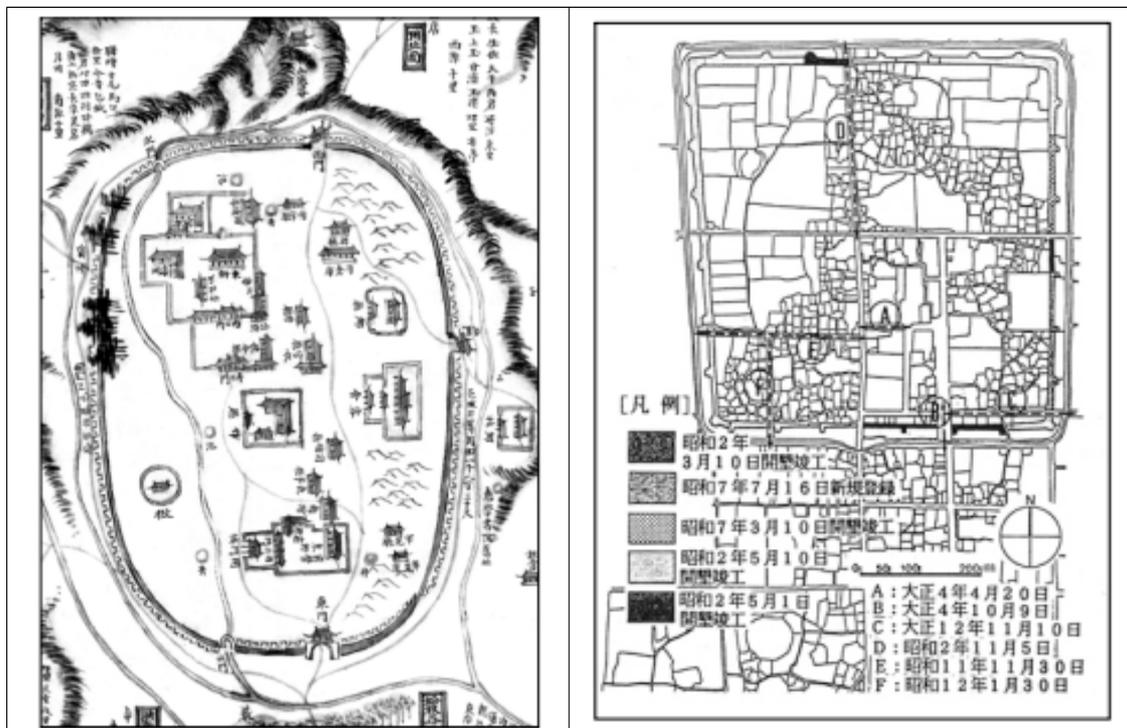
이 책의 마지막 장은 “흑인지리학(Black Geographies)”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저자는 이를 “지리학에서의 배제(Exclusions in Geography)”라는 문제의식으로 집약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배제’라는 개념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지리적 경험이 역사적 기록 속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그것은 지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형성·발전되는 과정에서 식민주의적 권력 관계, 제국주의적 팽창 논리, 그리고 근대적 통치술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따라서 지리학은 결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간 기술의 학문이 아니며, 오히려 권력, 지배, 식민적 세계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식 체계였다. 그 결과, 지리학의 인식론적 토대와 학문적 방법론은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거나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지리사상사』라는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하며 도달한 결론은, 지리학이란 단순히 땅과 공간을 물리적으로 측량하거나 묘사하는 학문을 넘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그 공간성을 다층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는 지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속에는 지리학사 초기 단계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탐구 시도 역시 포괄되며, 첫 번째 스터디 시간에 논의했던 동아시아의 토지 인식 방식과 지리학적 전통 또한 중요한 사례로 자리한다. 즉, 지리학은 보편적이고 단일한 지식 체계라기보다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는 관계적·상대적 인식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식민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리학은 본래 지니고 있던 “다양하고” 문화적인 의미를 점차 상실하였다. 그 대신 정밀 측량, 효율성, 자본 축적이라는 근대적 원리에 종속되며 획일화된 학문적 체계로 변모하였다. 특히 “다양하고”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근대 시기 지리학의 학문적 전환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1876년 체결된 강화도 조약은 한국사에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일본 측이 조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권리를 확보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근대적 '정밀 측량' 개념을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된 계기였으며, 결국 조선 역시 제국주의적 지리학 체계 속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때 중요한 논점은 단순히 '어떤 지도가 더 우월한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다. 조선이 보유했던 회화식 지도는 단순한 기술적 미비의 산물이 아니라, 당대 사회가 지니고 있던 고유한 공간 인식과 세계관을 반영한 독창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근대적'이라는 명목 아래 도입된 서구식 지리학의 획일적 기준은 전통적 지도 제작 방식을 점차 주변화하고 소멸시켰다. 이러한 맥락은 교재 14장에서 다룬 논의와도 긴밀히 연결되지만, 동시에 '흑인지리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흑인지리학은 바로 이러한 식민주의적 지리학의 절대성에 맞서, 주변화된 시각과 배제된 공간성을 복원하려는 학문적·정치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 좌: 조선시대 홍주읍성도, 우: 일제강점기 홍주읍성 지도
출처(최상식, 2001 재인용)

2. 지리학의 절대성과 흑인지리학

흑인지리학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이전에도, 캐서린 맥키티릭 (Katherine McKittrick) 등의 연구를 통해 '인종의 지리학(Racial Geographies)'이라는 담론이 먼저 제기된 바 있다. 이 담론은 사회지리학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며, 인종적 차별과 공간적 분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는

지를 탐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 미국 도시 내부의 빈민 지역(inner cities), 국경 지역(borderlands)과 같은 공간들이 대표적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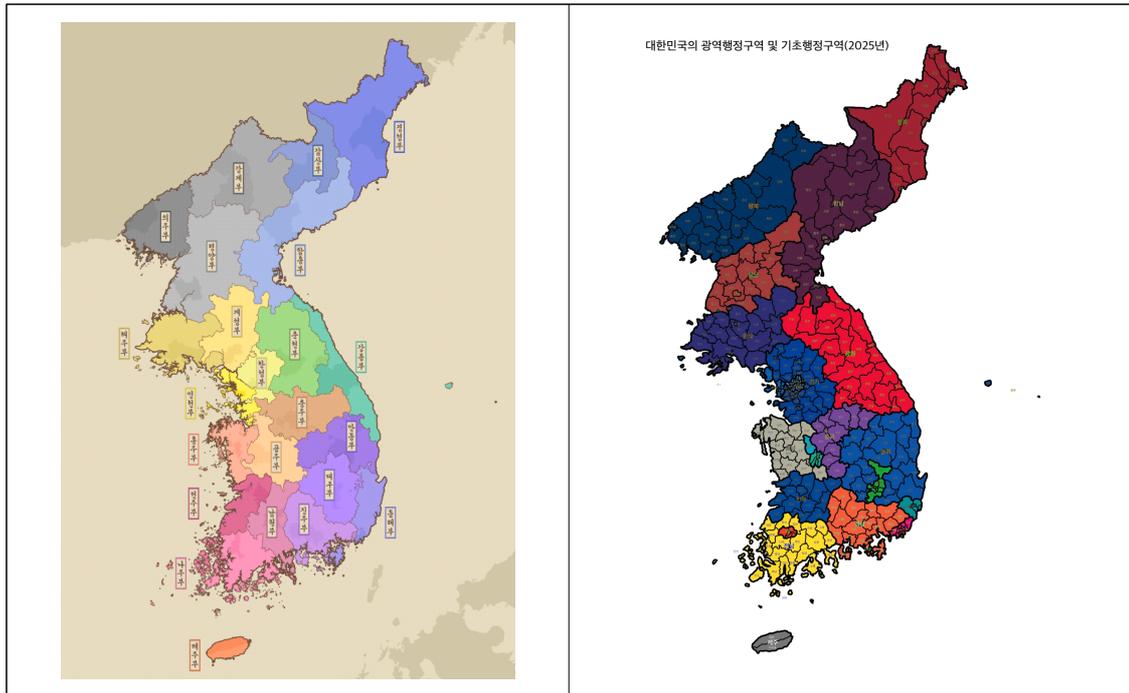
그러나 '인종의 지리학'은 대체로 인종별 공간 분리 현상을 기술적으로 묘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지식 생산의 불평등성과 학문적 배제를 충분히 문제화하지는 못했다. 특히 문화적 차원이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두드러지는데, 저자가 예로 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음악 장르인 블루스(Blues)는 단순한 예술 형식이 아니라, 흑인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역사적 고통, 그리고 공간적 맥락이 응축된 문화적 지리학적 산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스와 같은 문화적 공간성은 오랫동안 지리학의 주요 담론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지리학이 결코 '중립적인 학문'이 아니라,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특정 집단의 경험을 가시화하거나 지워버리는 지식 체계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사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갑오개혁기(1894~1896)에 시행된 지방행정제도 개편, 즉 23부제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지방 행정체계는 도(道)-부(府)-목(牧)-군(郡)-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도호부·도호부¹⁾와 같은 특수 행정단위도 존재했다. 그러나 500년 이상 지속된 8도 체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효율성을 내세워 23부제를 시행한 것은 지나치게 급진적이었으며,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곧 13도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수치적 개편이 아니라, 서구적 근대 국가 모델에 부합하기 위해 전통적 공간 인식을 억압하고 획일화하려 했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한국에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특례시 제도가 국가 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 속에서 등장했으나 동시에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과는 유사한 맥락이다. 즉,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보다는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지역성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결국 이러한 지점에서 드러나는 지리학의 '절대성'은 근대 지리학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 시선과 결합하여 나타난 산물이다. 당시 인종의 지리학을 다루던 학자들조차 인종이 생물학적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인종적 분리를 합리화하는 학문

1) 조선시대의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도호부(都護府) 제도는 현대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례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체계는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시·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별도의 특별자치단체가 지정되곤 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 주민에게 더 확장된 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배분과 행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특별자치단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방행정체계 전반에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몇 지역에 특수한 자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적 장치로 지리학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 학자가 델라니(Delaney)였다. 그는 기존 백인 지리학자들의 접근과 달리, “바깥쪽의 도시(Outer City)”, “도시의 심장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공간(Unreserved Space)” 등 다양한 장소 속에서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백인 지리학자들의 인종 개념은 단지 합법적 담론 속에서 공간과 장소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기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 좌: 23부제 관련 지도, 우: 현대 우리나라 지도
출처 : 위키피디아

델라니 이후 인종지리학의 발전 과정에서는 백인 중심 지리학의 한계를 성찰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예컨대 Schein(2009)은 백인 지리학자들이 바라본 경관이 어떻게 흑인의 삶을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만드는 선택적 시각을 제공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지리학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묘사하는 학문이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특정 집단의 경험을 가시화하거나 은폐하는 기제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책의 저자 역시 이러한 지리학의 절대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특히 백인 중심 담론 속에서 무시되고 주변화된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지적한다. 그는 일부 백인 지리학자들이 흑인 지리학자들의 연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인용하거나 언급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기식 수용’을 한다고 비판한다. 이 지적에는 일면 타당성이 존재한다. 특히 백인의 시선과 실증주의적 인식론으로는 환원 불가능한 고유한 경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스터디에서 논의했던 페미니즘 지리학과 유사성을 떠올렸다. 26년간 남성으로 살아온 내가 여성의 공간적 경험, 특히 일상속에서 여성들이 체감하는 '공포의 지리학'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백인 지리학자들이 흑인 공동체의 공간적 경험을 온전히 체득할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과 상통한다. 그러나 동시에 저자의 논의가 백인과 흑인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설정하고, '흑인 중심의 지리학'으로 기존 지리학의 절대성을 대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근대 지리학의 획일화 속에서 배제된 집단은 흑인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한국의 사례를 비롯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과 인종이 식민주의적 지리학 속에서 주변화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학문이 추구해야 할 과제는 저자가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Black Lives Matter의 표현은 잠깐 빌려서 사용하자면, (Only) Black Lives Matter 아니라, Every Lives Matter이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흑인의 지리학으로 기술하고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배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이 책에서 저자는 흑인지리학(Black Geographies)을 단순히 하나의 주제로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본문 전반에 걸쳐 이 개념을 끊임없이 환기한다. 특히 저자는 흑인지리학을 책의 마지막 장에 배치한 이유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후일담적 주제'가 아니라, 지리학이라는 학문 전체를 재구성하는 핵심 문제의식임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본문 곳곳에서 클라이드 우즈가 제시한 지역 연구에 대한 비판적 기여(3장), 루스 월슨 길모어와 세드릭 로빈슨의 마르크스주의적 지리학에 대한 기여(7장), 페미니즘 지리학의 문제의식(8장), 탈식민주의 지리학의 담론(14장) 등이 흑인지리학의 시각과 긴밀히 접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흑인지리학이 특정 주제의 부록이 아니라, 지리학의 학문적 지평을 확장하고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흑인 노예선, 플랜테이션 농업, 흑인 공동체의 공간성 등 이 글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 주제들을 소개하면서, 흑인지리학이 결코 단일한 연구 분야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첩된 지리학적 경험들을 복원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는 흑인지리학이 기존 지리학에서 소외되고 지워졌던 집단적 경험을 복원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이 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지리학의 전개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은 흑인만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식민주의적 지리학의 틀 속에서 동일하게 주변화되었다. 특히 저자는 백인 중심의 근대 지리학의 관점과 흑인 공동체가 땅과 자연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를 강조하며 이러한 소외의 기원을 설명하지만, 이는 보다 다층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예컨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공유되는 무위자연(無爲自然) - 인간이 자연에 인위적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를 중시하는 인식 - 이나, 도교 사상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 -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자연철학적 세계관 - 은 모두 서구 근대 지리학의 효율성과 측량 중심의 관점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안적 지리학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불교적 사유 속에도 존재하는 자연 인식은, 서구적 근대 지리학의 절대성 속에서 배제되거나 왜소화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흑인지리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과정은 분명 필수적이고 의미 있는 학문적 시도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닌 전통적 자연관과 공간 인식 또한 동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찰될 필요가 있다. 즉, 지리학의 다원성과 지역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인식론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구성할 것인가가 오늘날 지리학 연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이 제기하는 흑인지리학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경험을 복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리학이라는 학문이 지닌 권력성과 배제 구조를 전 지구적·보편적 차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본 발제문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흑인지리학'이라는 특수한 개념을 넘어, 한국 지리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지리학적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오늘날의 학문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4. 토론거리

1. 근대지리학의 발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우리나라의 지리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현대 한국에서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도(道)를 폐지하고 다각적인 광역시를 많이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23부제와 상당히 유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필요성 등을 듣고 싶습니다.

※ 참고문헌

- 정광섭, 2012, 「23부제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소고」, 『한일관계사연구』 41.
- 최상식, 2001, 「일제시대 洪州郡城(홍주읍성)의 土地利用(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 筆地體系(필지체계) 및 所有權變化(소유권변화)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석, 2023, 「갑오개혁·대한제국기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자치 논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